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paration Anxiety of Mothers and Young Children, and Mothers'
Overprotection on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송면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 사 김 미 경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김 연 화
조 교 수 한 세 영

Songmyun Kindergarten

Teacher : Mi Kyoung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h. D. Candidate : Youn Hwa Kim

Assistant Professor : Sae Young Ha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how the separation anxiety of mothers and children influences on the children's peer competence through mother's overprote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2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ree to five years old who attended at edu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hich were located in Cheongju city and Daejeon c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eparation anxiety of mothers and children,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according to the social demographic backgrounds. Second, the separation anxiety of mothers and children influenced on mother's sheltering behavior and babying behavior. Third, mothers' sheltering behavior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and children's prosocial

Corresponding Author : Sae Young Han,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10 Sungbong-Ro Heungduk-gu,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2763 Fax: +82-43-260-2793 E-mail: evenhow@chungbuk.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behavior. It also appeared that mothers' babying behavior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paration anxiety of mothers and children and children's initiative.

주제어(Key Words) : 분리불안(separation anxiety), 과보호적 양육행동(overprotection), 또래유능성(peer compete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일차적인 육구 충족의 장소로서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성장해 가는 곳이다. 유아는 성장 과정에서 가족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는 유아의 성격형성이나 행동발달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여성들의 자아식이 변화하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취업주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업주부들도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다양한 취미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의 입학시기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취학전 조기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학령기 이전의 유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등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유아간의 분리가 일찍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어머니 분리불안과 유아의 분리불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뿐 아니라 어머니도 분리불안을 느끼는데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자녀를 통해 얻는 안정성, 보호나 안락감 등이 방해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복희, 박성옥, 1992).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와 분리되어야만 할 때 어느 정도의 불안이나 걱정은 경험하게 되지만 불안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형성과 이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분리불안은 어머니로부터 격리되어 나타나는 불안이나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친숙하지 못한 얼굴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현상으로, 유아가 애착 대상인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는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불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지나친 분리불안은 유아와 어머니와의 올바른 애착관계의 부족으로 볼 수 있으며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

유아가 새로운 것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주로 회피하

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와 분리되는 것에 더 높은 불안을 나타냈다는 연구들(김민지 2000; 소연주, 도현심 2001; 안지영, 도현심 1998)에서 유아의 반응과 행동이 어머니의 불안을 유발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부모는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원하고 있기에 유아가 새로운 것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경우,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유아를 가까이서 돌보려 하고 유아와의 분리를 불안해 하여 유아에 대한 과보호행동 및 민감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이게 된다(Levy, 1970; 김경미, 2003).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경험하게 되면 유아의 개별화 과정은 방해받고 결국 아동의 자율성 발달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Benedek, 1970). 유아기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달과업으로 하는 시기로, 자율성과 주도성 발달의 방해 받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원만하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양육의 질을 관련 지어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유아의 지능과 같은 인지적 능력에 못지않게 유아의 성공적인 적응이나 성인기의 성취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Crick, 1996; Hartup, 1983; Parker & Asher, 1993). 어머니는 유아의 상호작용 대상으로 유아가 최초로 사회관계를 맺는 존재이며 또래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를 검증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깊은 관계가 있으며, 역기능적인 양육행동 즉, 개별화를 방해할 수 있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또한 또래유능성의 발달에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손승희, 2002; 양혜련, 2000).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분리불안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유아의 성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을 예측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과, 탁아와 관련하여 어머니 분리불안을 조사 하였고 (박주영, 1999; 송진숙, 1994; 이영미, 1997; 이은숙, 1999)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어머니의 특성과 아동의 초기 기질,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소언주, 2001)가 있다. 그러나 어머니 분리불안, 유아분리불안,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며, 무엇보다 어머니 분리불안과 유아분리불안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머니 분리불안과 유아 분리불안은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상태와 관련된 변수이며 유아의 또래관계는 유아의 사회성발달영역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와 유아의 불안정서가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어머니와 유아의 불안정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과보호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영역인 또래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불안정서와 유아의 또래 유능성 사이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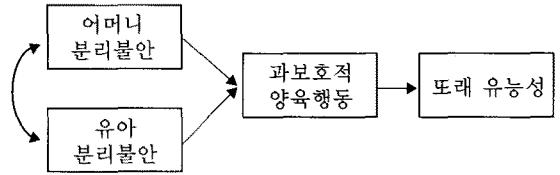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어머니의 심리상태의 중요한 차원인 어머니 분리불안과 유아의 특적인 유아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유아의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모형

연구문제에 기초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어머니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 및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II.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분리불안이란 부모-자녀관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이며 건강한 애착관계의 지표로, 어머니가 표현하는 분리불안은 아이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 슬픔, 죄책감 및 불편함 등의 감정을 모두 포함한 분리 사건과 관련된 일시적 불안상태를 의미한다(Hock, Gnezda, & McBride, 1989; Lutz & Hock, 1995). 분리불안을 느끼는 부모들은 아이와 헤어질 때 쉽게 떠나지 못해 주저하거나 대리양육자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하며, 평상시 자주 전화를 걸거나 낮 시간에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김민지, 2000).

Bowlby의 애착관계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리불안을 이해 하면,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유아와의 접근을 통한 안정성이나 신체적 밀접함을 통한 보호, 그리고 안락감을 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방해받음으로서 생겨나며, 신체적 밀접함과 애정의 상호교환은 유아와 어머니 모두에게 즐거운 것으로 느껴지는 반면 거부의 표현과 거리감은 어머니와 유아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으로(Mcbrde & Belsky, 1998, 박성욱, 1993 재인용), 주변세계에 대한 유아의 탐색과 발견을 조장하는 어머니의 능력을 감소시킨다(조복희, 박성욱, 1992).

한편,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며, 이는 유아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유아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Becker, 1964), Baumrind(1991)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의 모든 차이가 부모 양육행동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출산을 저하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기대가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Parker(1979)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제와 동시에 독립적 행동을 방해하고 아기취급을 하는 태도로 정의하였고, 박아청(1998)은 과보호란 수용적이면서도 간섭적이고 관심이 지나친 것 같으면서도 무관심한 양육태도로, 다양한 차원들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의 양육태도라고 하였다. Doh와 Falbo(1999)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아이들이 받아야 할 이상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부모가 주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유아는 의존적이 되어 자율성 발달에 저해를 가져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모 양육행동의 한 방식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심리적 요소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 경우 유아의 개별화 과정을 방해하고 결국 유아의 자율성 발달을 해치는 과보호 행동 및 민감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어(Benedek, 1970; Levy, 1970),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아기취급행동과 과보호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소언주, 2000). 김경미(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기도 하였다.

2. 유아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유아의 분리불안은 유아가 어머니가 없었을 때를 기억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어머니가 유아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 유아가 나타내는 일종의 공포반응이다. 이는 애착대상을 잃지 않으려고 찾고, 울고, 부르는 행동으로 표현된다(Ambrose, 1961). 유아가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면 위축, 무감동, 슬픔을 보이고, 놀이에 집중하지 못한다. 자신의 신변에 과도한 위협을 느끼며 지나친 요구와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기도 하며 분리가 예상되어 기분이 상할 때에는 화를 내거나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분리불안의 특성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애착대상에서 분리되는 것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며 매우 불안해하는 것이다. Bowlby(1969)는 유아가 어머니에게 강하게 애착될수록 어머니의 부재 동안에 닥치는 어려움에 잘 직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분리불안은 유아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약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어머니가 즉각 반응하리라는 것을 유아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결국, 유아의 분리불안이란 심리적으로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불안정한 모자 관계에서 성장하여, 안정된 애착형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분리불안은 6-8개월경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18개월 이후 절정에 이르고, 분리개별화기가 끝나는 36개월 이후에는 서서히 소멸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안이 나타나는 시기는 7-12개월로 서양과 비슷하나 없어지는 시기는 4세경으로 서양과 다르다고 송명자(1995)는 지적하였으며, 유아의 부적합한 가정환경과 어머니와의 부적합한 상호작용으로 5세 이후까지 지속되어 나타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분리불안 현상은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유아의 정신발달상의 문제, 환경과 부모의 양육상의 문제, 아동의 내적 경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개인차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가 자기와 대상의 분리를 받아들인데 실패하게 되면 어머니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게 되고, 어머니는 이로 인하여 유아에게 필요 이상의 애착을 갖고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며 유아에 대한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유아의 울음과 요구, 어머니에게 관심을 더 구하려는 의존 등의 유아의 불안정한 애착 행동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적 특성과의 관련이 있는 유아의 분리불안은 어머니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리불안이 지나칠 경우 유아는 어머니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의 적응이 어렵고 사소한 어려움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어머니 품안에 안주하거나 쉽게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경향을 보임으로 결국 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과보호를 하게 된다.

유아분리불안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관계를 본 연구결과는 많지 않은 실정이나 소언주(2000)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접근-회피성은 유아의 분리불안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경미(2003)에 의하면 아동의 적응성이 분리불안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것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주로 회피하는 유아의 반응은 어머니의 불안을 유발하고(김민지 2000; 소언주, 도현심 2001; 안지영, 도현심 1998), 과보호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의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또래유능성이라 하는데(Howes, 1987), 박주희(2000)는 또래유능성을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관계 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즉, 또래 유능성을 여러 유아와 잘 어울리고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는 사교성, 또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주도성, 또래에게 민감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친사회성과 같은 효율적인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유아가 생의 초기에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정서적 경험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취학 전

유아의 주요 발달과제는 또래 관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Waters, Wippman, & Sroufe, 1979). 따라서 연구자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이후의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유아의 부모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 유지하고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이런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어머니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기여하지만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는 부모 중 어머니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권일선, 1995), 어머니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또래와의 경험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깊다(Petteit, Dodge, & Brown, 1988).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정적관계가 있으며, 과보호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낮은 또래 유능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손승희, 2002; 양혜련, 2000).

Hurlock(1978)은 부모의 과보호는 유아로 하여금 과도한 의존, 자신감의 결핍 및 욕구 불만 같은 것을 갖게 하기 쉽고 하였고, Rubin(1995)은 과보호가 유아의 위축행동을 조장한다고 보고하였다. Nelsen과 Erwin(2000)에 의하면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아동의 능력을 간과하고, 아동의 탐색과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내적 강인함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열등감과 신경증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과보호는 부모와 아동의 개별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서로 과잉된 기대와 간섭으로 인해 다른 어떤 부모-자녀 관계보다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많아 아동에게 정신 병리적 특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연구에서도 문혁준(2000)은 고립아 어머니의 경우 인기아의 어머니에 비해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박주희(2001)는 어머니가 과보호를 덜 할수록 유아는 또래 관계에서 주도적이라고 하였다. 이소미(2002)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자존감과 부적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최영희(2004)는 어머니가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유아가 자기 유능감을 낮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부모와 교사에게 유아의 분리불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여 분리불안과 또래 적응 과정을 겪는 유아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와 대전광역시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 4, 5세 유아 320명과 그들의 어머니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던 유아들이 만 3~5세가 되면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는데, 이 시기에 유아들은 부모와 빈번한 분리경험을 하게 되고(안지영, 도현심, 1998) 생애초기인 유아기의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리불안이 나타나는 시기는 7-12개월로 서양과 비슷하나 없어지는 시기는 4세 경으로 서양과 다르며 유아의 부적합한 가정환경과 어머니와의 부적합한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5세 이후까지 지속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4세와 5세도 포함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분리시간이 아닌 부모와의 분리경험으로 인한 불안이 어머니와 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부모와의 분리시간, 활동과 일과 등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두 기관 모두에서 유아는 부모와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공통적으로 분리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각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여, 수정된 설문지로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을 방문하여 회수하였으며, 총 350부의 질문지 중 30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 분리불안 척도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 (MSAS: Hock, McBride, & Gnezda, 1989)중 일부인 '어머니의 일반적인 분리불안' 요인을 번안하여 사용한 안지영과 도현심(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원래 3요인으로 구성된 MSAS를 어머니의 일반적인 분리불안을 측정하는 요인만을 선택하여 총 21문항 가운데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하지 않은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9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한 것이다. 어머니 분리불안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분리불안을 많이 느끼는 의미를 가진다.

2) 유아의 분리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의 분리불안 척도는 안순조(2002)가 개발한 유아분리불안 교사 평정척도를 한미옥(2004)이 어머니 평정척도로 수정,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어머니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유아가 어머니와 떨어질 때 나타나는 불안 정도를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분리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어머니가 지각함을 의미한다.

3)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Doh와 Falbo(1999)의 Parental Protectiveness 척도를 이용하였다. 부모의 과보호성은 아기취급행동(babying behavior)과 과잉보호행동(sheltering behavior)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소언주(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기취급행동(7문항)과 어머니의 과잉보호행동(4문항)인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아기취급행동은 아이를 연령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도와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과잉보호행동은 아이가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우려하는 행동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아기취급행동 .80, 과잉보호행동 .71이다.

4)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평정하는 것으로, 사교성(5문항), 친사회성(5문항), 주도성(5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15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각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사교성 .92, 친사회성 .90, 주도성 .91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t 검증 및 F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과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유아의 또래유능성

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유아의 분리불안의 차이

사회인구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유아의 분리불안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차이를 준 변인은 유아의 성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였다. 여아의 어머니들($M = 1.63$)은 남아의 어머니($M = 1.56$)보다 분리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 = -2.10, p < .05$). 또한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관련해서 취업모들이($M = 1.63$) 비취업모들($M = 1.57$)보다 분리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11, p < .05$).

유아의 분리불안의 경우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연령이 36세 이상인 경우($M = 1.87$)가 35세 이하인 경우($M = 1.77$)보다 유아들은 더 많은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 = -2.33, p < .05$).

2)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과보호 양육행동의 차이

<표 2>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차이를 나타낸 결과이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성, 연령,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 그리고 기관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성에 따라 과보호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인 과잉보호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들은 남아($M = 2.57$)보다는 여아($M = 2.70$)들을 더 과잉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20, p < .05$). 유아의 연령은 과보호 양육행동 전체와 과보호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인 아기취급행동에서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는데, 어머니들은 만 5세아($M = 2.17$)들 보다 만

3세아($M = 2.55$)나 만 4세아($M = 2.32$)를 과보호 하는 것으로 나타나($F = 7.71, p < .01$), 나이가 어 린 유아일수록 아기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F = 12.74, p < .001$).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 들은 첫째($M = 2.56$)자녀를 둘째($M = 2.44$), 셋째($M = 2.40$)이상의 자녀들보다 과보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 = 3.05, p < .05$).

어머니 관련변인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났는데 대졸학력을 가진 어머니들($M = 2.49, M = 2.71, M = 2.60$)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어머니들($M = 2.23, M =$

$2.58, M = 2.41$)보다 자녀들을 아기취급하거나($t = -4.40, p < .001$) 과잉보호를 하여($t = -2.02, p < .05$) 전반적으로 과보 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56, p < .001$).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 는 유아들($M = 2.42, M = 2.56$)이 아기취급을 받거나($F = 4.56, p < .05$) 과보호 양육행동($F = 4.66, p < .05$)을 많이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또래 유능성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또래유능성의 차이를 알아본

〈표 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의 차이

변인	구분	n	분리불안	
			어머니 M(SD)	유아 M(SD)
유아의 성	남	156	1.56(.27)	1.79(.37)
	여	146	1.63(.28)	1.87(.35)
	t		-2.10*	-1.89
유아의 연령	만 3세	76	1.62(.26)	1.86(.34)
	만 4세	105	1.59(.27)	1.83(.38)
	만 5세	121	1.59(.29)	1.81(.37)
	F		.25	.36
형제수	외동이	41	1.65(.25)	1.90(.36)
	2명	181	1.59(.27)	1.81(.35)
	3명이상	80	1.58(.30)	1.83(.39)
	F		.99	1.07
출생순위	첫째	101	1.63(.24)	1.85(.35)
	둘째	143	1.58(.29)	1.82(.37)
	셋째이상	58	1.59(.30)	1.81(.36)
	F		.99	.23
모연령	35세 이하	134	1.60(.26)	1.77(.36)
	36세 이상	166	1.59(.29)	1.87(.36)
	t		.38	-2.33*
모학력	전문대졸 이하	199	1.59(.29)	1.83(.36)
	대졸 이상	101	1.60(.25)	1.82(.37)
	t		-.35	.12
모취업유무	비취업	166	1.57(.30)	1.84(.38)
	취업	134	1.63(.24)	1.81(.34)
	t		-2.11*	.74
월수입	200만원 이하	84	1.60(.29)	1.86(.39)
	201-300만원	107	1.60(.29)	1.83(.37)
	301-400만원	56	1.54(.30)	1.79(.38)
	401만원 이상	55	1.65(.18)	1.83(.31)
	F		.28	.12
취원유형	반일제, 연장제	160	1.57(.29)	1.82(.32)
	종일제	142	1.63(.26)	1.84(.37)
	t		.28	.92
기관유형	국공립유치원	156	1.58(.29)	1.82(.36)
	사립유치원	12	1.57(.35)	1.84(.34)
	민간어린이집	134	1.62(.26)	1.84(.37)
	F		1.19	.21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차이

변인	구분	n	과보호적 양육행동		
			아기취급행동 M(SD)	과잉보호 M(SD)	전체 M(SD)
유아의 성	남	156	2.34(.55)	2.57(.52)	2.45(.44)
	여	146	2.29(.51)	2.70(.55)	2.49(.46)
	<i>t</i>		.90	-2.20*	-.77
유아의 연령	만 3세	76	2.55(.47)a	2.67(.53)	2.61(.43)a
	만 4세	105	2.32(.47)b	2.69(.55)	2.50(.42)a
	만 5세	121	2.17(.56)c	2.56(.52)	2.36(.46)b
	<i>F</i>		12.74***	2.02	7.71**
형제 수	외동이	41	2.47(.45)	2.69(.47)	2.58(.38)
	2명	181	2.30(.54)	2.63(.52)	2.46(.46)
	3명이상	80	2.28(.53)	2.60(.60)	2.44(.46)
	<i>F</i>		2.17	.41	1.48
출생 순위	첫째	101	2.42(.49)	2.70(.47)	2.56(.40)a
	둘째	143	2.26(.54)	2.62(.54)	2.44(.46)b
	셋째이상	58	2.27(.56)	2.53(.62)	2.40(.48)b
	<i>F</i>		2.91	1.92	3.05*
모연령	35세 이하	134	2.34(.50)	2.62(.50)	2.48(.41)
	36세 이상	166	2.30(.55)	2.63(.56)	2.47(.48)
	<i>t</i>		.54	-.1	6.22
모학력	전문졸 이하	199	2.23(.54)	2.58(.53)	2.41(.45)
	대졸 이상	101	2.49(.47)	2.71(.54)	2.60(.42)
	<i>t</i>		-4.04***	-2.02*	-3.56***
모취업	비취업	166	2.29(.52)	2.64(.56)	2.46(.47)
	취업	134	2.36(.53)	2.62(.50)	2.49(.43)
	<i>t</i>		-1.08	.29	-.46
월수입	200만원 이하	84	2.26(.51)	2.63(.52)	2.44(.43)
	201-300만원	107	2.29(.57)	2.67(.58)	2.48(.50)
	301-400만원	56	2.26(.54)	2.44(.45)	2.35(.41)
	401만원 이상	55	2.50(.44)	2.75(.50)	2.63(.37)
	<i>F</i>		2.62	.35	1.40
취원 유형	반일제, 연장제	160	2.30(.57)	2.58(.54)	2.44(.46)
	종일제	142	2.33(.48)	2.69(.53)	2.51(.43)
	<i>t</i>		-.53	-1.84	-1.40
기관 유형	국공립유치원	156	2.24(.54)b	2.56(.56)	2.40(.47)b
	사립유치원	12	2.15(.60)b	2.72(.59)	2.44(.50)b
	민간어린이집	134	2.42(.49)a	2.70(.50)	2.56(.41)a
	<i>F</i>		4.56*	2.82	4.66*

* $p < .05$. ** $p < .01$. *** $p < .001$.

결과는 〈표 3〉와 같다.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아들이($M = 2.93$, $M = 2.89$) 남아들보다($M = 2.67$, $M = 2.72$) 친사회성($t = -3.93$, $p < .001$)과 또래유능성($t = -2.85$, $p < .01$)이 높았고, 만 4세가($M = 2.92$) 만 3세보다($M = 2.66$) 친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4.62$, $p < .05$). 또한 형제수가 3명이상인 경우($M = 2.92$)가 외동이($M = 2.61$)들보다 친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F = 3.78$, $p < .05$), 출생순위에서도 첫째보다($M = 2.65$) 둘째($M = 2.88$), 셋째인 경우($M = 2.86$) 친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5.03$, $p < .01$).

한편 어머니의 연령에서 어머니가 36세 이상인 자녀들이($M = 2.88$) 35세 이하의 자녀들보다($M = 2.71$) 친사회성이 높았다($t = -2.50$, $p < .05$). 취원유형별로는 종일제로 교육을 받는 유아들이($M = 2.86$) 반일제나 연장제로 교육을 받는 유아들보다($M = 2.66$) 주도성이 높게 나타났다($t = -2.69$, $p < .01$).

마지막으로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의 유아들($M = 2.88$)이 민간어린이집의 유아들보다($M = 2.70$) 친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 = 3.22$, $p < .05$).

〈표 3〉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차이

변인	구분	n	또래유능성			
			사교성 M(SD)	친사회성 M(SD)	주도성 M(SD)	전체 M(SD)
성	남	156	2.80(.62)	2.67(.58)	2.68(.67)	2.72(.53)
	여	146	2.91(.60)	2.93(.56)	2.83(.67)	2.89(.52)
	<i>t</i>		-1.54	-3.93***	-1.95	-2.85**
연령	만 3세	76	2.81(.65)	2.66(.57)b	2.68(.68)	2.71(.57)
	만 4세	105	2.91(.63)	2.92(.62)a	2.82(.65)	2.88(.55)
	만 5세	121	2.83(.57)	2.78(.54)ab	2.75(.69)	2.79(.49)
	<i>F</i>		.80	4.62*	.95	2.33
형제수	외동이	41	2.74(.52)	2.61(.54)b	2.61(.55)	2.65(.38)
	2명	181	2.87(.60)	2.79(.55)ab	2.80(.66)	2.82(.52)
	3명이상	80	2.88(.68)	2.92(.65)a	2.73(.75)	2.84(.62)
	<i>F</i>		.90	3.78*	1.35	1.92
출생 순위	첫째	101	2.78(.49)	2.65(.49)b	2.71(.57)	2.71(.40)
	둘째	143	2.93(.64)	2.88(.58)a	2.81(.70)	2.87(.55)
	셋째이상	58	2.81(.71)	2.86(.69)a	2.67(.77)	2.78(.65)
	<i>F</i>		1.91	5.03**	1.18	2.72
모연령	35세이하	134	2.87(.57)	2.71(.57)	2.76(.64)	2.78(.50)
	36세이상	166	2.85(.64)	2.88(.59)	2.75(.70)	2.83(.56)
	<i>t</i>		.20	-2.50*	.19	-.75
모학력	전문대졸이하	199	2.83(.61)	2.82(.56)	2.70(.64)	2.78(.51)
	대졸이상	101	2.91(.61)	2.77(.63)	2.86(.73)	2.85(.57)
	<i>t</i>		-1.07	.67	-1.86	-.95
모취업	비취업	166	2.85(.65)	2.80(.60)	2.72(.66)	2.79(.55)
	취업	134	2.87(.57)	2.81(.56)	2.80(.69)	2.83(.51)
	<i>t</i>		-.31	-.15	-1.12	-.64
월수입	200만원 이하	84	2.80(.58)	2.77(.53)	2.66(.63)	2.74(.49)
	201-300만원	107	2.84(.61)	2.80(.61)	2.70(.67)	2.78(.52)
	301-400만원	56	2.86(.67)	2.72(.62)	2.86(.72)	2.81(.60)
	401만원 이상	55	2.96(.61)	2.92(.57)	2.89(.69)	2.92(.54)
	<i>F</i>		2.13	.04	2.46	1.52
취원 유형	반일제, 연장제	160	2.82(.63)	2.83(.57)	2.66(.69)	2.77(.55)
	종일제	142	2.90(.59)	2.77(.60)	2.86(.64)	2.84(.51)
	<i>t</i>		-1.17	.93	-2.69**	-1.23
기관 유형	국공립유치원	156	2.86(.69)	2.88(.67)a	2.73(.74)	2.82(.62)
	사립유치원	12	3.02(.77)	2.87(.70)ab	2.68(.73)	2.86(.64)
	민간어린이집	134	2.84(.48)	2.70(.43)b	2.78(.59)	2.78(.40)
	<i>F</i>		.48	3.22*	.29	.33

* $p < .05$, ** $p < .01$, *** $p < .001$.

2.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표 4〉은 어머니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01에서 .50으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불안, 유아불안 및 과잉보호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중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불안($\beta = .45, p < .001$)과 유아불안($\beta = .11, p < .05$)은 어머니의 과잉보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과잉보호는

유아의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658, p > .05, df = 2, GFI = .997, AGFI = .986, NFI = .990$).

어머니 분리불안, 유아 분리불안 및 과잉보호가 유아의 또래유능성 중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어머니 분리불안($\beta = .45, p < .001$)과 유아 분리불안($\beta = .11, p < .05$)은 어머니의 과잉보호양육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과잉보호행동은 유아의 주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5.599, p > .05, df = 2, GFI = .991, AGFI = .954, NFI = .966$).

〈표 4〉 어머니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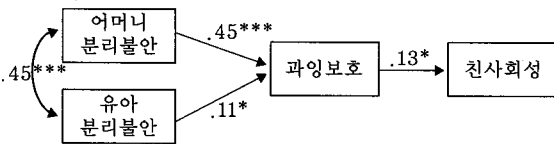
		어머니	유아	과보호적 양육행동			또래유능성	
		분리불안	분리불안	아기취급행동	과잉보호행동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어머니 분리불안		1.00						
유아 분리불안		.45***	1.00					
과보호적 양육행동	아기취급행동	.32***	.29***	1.00				
	과잉보호행동	.50***	.31***	.43***	1.00			
또래 유능성	사교성	.01	-.04	-.10	.10	1.00		
	친사회성	.06	.05	-.08	.13*	.06	1.00	
	주도성	-.00	-.12*	-.13*	-.02	-.00	-.12*	1.00

* $p < .05$. *** $p < .001$.

〈그림 2〉는 어머니 분리불안, 유아 분리불안 및 과잉보호 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중 친사회성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것이다. 어머니의 분리불안($\beta = .45, p < .001$)과 유아 분리불안($\beta = .11, p < .05$)은 어머니의 과잉보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과잉보호($\beta = .13, p < .05$)는 유아의 친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0.066, p > .05, df = 2, GFI = 1.000, AGFI = .999, NFI = 1.000$).

〈표 5〉은 어머니 분리불안, 유아 분리불안 및 과잉보호가 친사회성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어머니의 분리불안(.45)과 유아 분리불안(.11)은 과잉보호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유아의 이러한 과잉보호(.13)는 친사회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친사회성에 대해 어머니의 과잉보호행동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과잉보호양육을 많은 받은 유아들이 친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어머니 분리불안, 유아 분리불안 및 아기취급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중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 $p < .05$. *** $p < .001$.

〈그림 2〉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및 과잉보호행동이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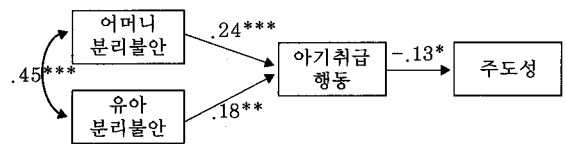
〈표 5〉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및 과잉보호행동이 친사회성에 미치는 직,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 분리불안	과잉보호	.45	-	.45
유아 분리불안	과잉보호	.11	-	.11
과잉보호행동	친사회성	.13	-	.13
어머니 분리불안	친사회성	-	.06	.06
유아 분리불안	친사회성	-	.01	.01

경로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분리불안($\beta = .24, p < .001$)과 유아 분리불안($\beta = .18, p < .01$)은 어머니의 아기취급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아기취급행동은 유아의 사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933, p > .05, df = 2, GFI = .998, AGFI = .992, NFI = .992$).

〈그림 3〉은 어머니 분리불안, 유아 분리불안 및 아기취급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중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것이다. 어머니의 분리불안($\beta = .24, p < .001$)과 유아 분리불안($\beta = .18, p < .01$)은 어머니의 아기취급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아기취급행동은 유아의 주도성($\beta = -.13, p < .05$)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4.628, p > .05, df = 2, GFI = .992, AGFI = .962, NFI = .961$).

어머니 분리불안, 유아 분리불안 및 아기취급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중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beta = .24, p < .001$)과 유아 분리불안($\beta = .18, p < .01$)은 어머니의 아기취급행동에 유의하게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및 아기취급행동이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6〉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및 아기취급행동이 주도성에 미치는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 분리불안	아기취급	.24	-	.24
유아 분리불안	아기취급	.18	-	.18
아기취급행동	주도성	-.13	-	-.13
어머니 분리불안	주도성	-	-.03	-.03
유아 분리불안	주도성	-	-.02	-.02

영향을 미치며, 아기취급행동은 유아의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642, p > .05, df = 2, GFI = .996, AGFI = .978, NFI = .977$).

〈표 6〉은 어머니 분리불안, 유아 분리불안 및 아기취급행동이 주도성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어머니의 분리불안(24)과 유아 분리불안(18)은 아기취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유아의 이러한 아기취급행동(-.13)이 주도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어머니의 아기취급행동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아기취급을 받은 유아들은 유아와의 관계에서 주도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 과보호양육행동, 또래유능성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어머니 분리불안, 유아분리불안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매개가 되어 어머니 분리불안과 유아 분리불안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부모와 교사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 시키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분리불안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에 따라 유아의 분리불안은 차이가 없는데 반해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차이가 있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부족하고 약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여아인 경우 어머니들이 분리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고 나타난 것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외부대상에 대한 인식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분리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박성옥(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취업모들이 비취업모보다 분리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취업모들이 유아와 잦은 분리경험을 가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유아에 대한 염려로 인해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불안을 더 느낀다고 한 박성옥(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유아 분리불안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36세 이상인 경우, 유아들은 더 많은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들의 늦은 출산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과잉 관심과 지나친 사랑, 수용적 양육으로 유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분리될 때 더 많은 불안을 느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에서는 어머니들이 남아보다는 여아들을 더 과잉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연약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사회화 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만 5세아 보다 만 3세나 만 4세 유아들을 과보호하며 첫째 자녀를 둘째, 셋째 이상의 자녀들보다 과보호하고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이 전문대학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보다 자녀들을 아기취급하거나 과잉보호하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이아이일수록 자조행동이 아직 미숙하여 어머니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며, 첫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해본 경험이 없어서 불안 수준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어머니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에 대한 정보와 지식수준이 높아 과보호 양육행동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래유능성에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친사회성과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아가 타인에 대해 더 공감적이고,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표현성이 높은 경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평정자인 교사의 성 고정관념이 평정에 반영되어 남아보다는 여아를 더 친사회적 이라고 평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친사회적 행동을 여성에게 적합한 특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이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반영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만 4세가 만 3세보다, 형제수가 3명 이상인 경우가 외동아들 보다, 첫째보다 출생순위가 둘째, 셋째인 경우 친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수와 출생순위의 결과에 있어서는 박주희(2001), Hartup(1983), Miller 와 Maruyama(1976)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순위가 낮은 유아는 윗 형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만이에 비해 형제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아 형제관계에서 배운 사회적 기술을 바탕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36세 이상인 자녀들이 35세 이하의 자녀들보다 친사회성이 높았다. 이는 36세 이상의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자녀양육 기술을 간접적으로 습득할 기회가 더 많아 친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양육기술이 더 좋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취원 유형에서는 종일제로 교육을 받는 유아들이 반일제나 연장제로 교육을 받는 유아들보다 주도성이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유치원의 유아들이 민간어린이집의 유아들보다 친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반일제, 연장제에 비해 종일제 유아들은 긴 시간을 유치원에서 생활하면서 유치원 생활에 좀 더 친숙하고 익숙해져 있고, 다른 유아들과 어울리는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유아들은 국공립유치원

에 비해 연령이 낮은 유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과보호적 양육행동(아기취급과 과잉보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소언주(2001)의 연구와 어머니가 분리불안을 많이 보일수록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경미(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격리불안이 높은 유아들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어머니께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고 연구한 한미옥(2004)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과잉보호행동은 유아의 사교성과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어머니의 과잉보호행동이 분리불안과 사교성, 주도성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잉보호행동은 유아의 친사회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로부터 과잉보호양육을 많이 받은 유아들이 친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용적이면서도 적극적이며 관심이 많은 부모의 양육행동(김춘경, 2000; 박아청, 1998)을 유아가 학습하여 또래관계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잉보호행동은 분리불안과 친사회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은 과잉보호를 통해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머니의 불안과 유아불안이 높을수록 아기취급행동을 하고 이러한 아기취급행동은 유아의 사교성과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어머니의 아기취급행동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불안과 유아불안이 어머니로 하여금 유아를 아기취급하게 하지만 이러한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있어 사교성과 친사회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아기취급행동은 유아의 주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아기취급을 받은 유아들은 유아와의 관계에서 주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기취급 행동은 분리불안과 주도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일수록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박주희(2000)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지나치게 허용적인 아버지의 아동이 또래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Fordham(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된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과보호·허용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나타난 신민경(2003)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유아를 아기취급 하는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그 결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도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과잉보호행동과 아기취급행동의 매개효과는 분리불안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방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분리불안으로 인해 어머니가 양육행동이 과보호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아의 또래 유능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와 유아의 불안정성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행동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요소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보다 어머니의 과잉보호행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유아와 분리됨으로써 자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아이를 돌봐주지 못한다는 심리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아이가 처한 주변 환경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과잉보호행동을 부추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아기취급 행동은 과잉보호행동보다 어머니 분리불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불안 심리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중 유아에게 지나친 도움을 주는 행동 보다는 유아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행동과 관련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유아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유아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어머니의 특성과 유아의 특성이 모두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 및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와 유아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친사회성과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어머니 분리불안 및 유아 분리불안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모델을 적용한 바에 따르면 분리불안이 직접적으로 발달에 역기능적으로 작용 한다기보다는 분리불안으로 인해 어머니가 과보호를 하므로 또래유능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 행동을 조절하고 변화시켜 유아를 양육한다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추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시기에 조사되어 유아나 어

머니의 분리불안 수준이 감소된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학기 초에 연구를 실시해 봄으로써, 분리불안이 다소 높을 수 있는 시기에 분리불안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유아의 분리불안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특히 눈에 띄는 유아 행동이기 때문에 회고적인 보고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연구방법에 있어 관찰을 병행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속해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분리불안을 조사하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시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치원에는 어린이집을 거쳐 온 유아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시기가 서로 다양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하기 시작한 연령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분리경험 시작시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분리경험 시작시기를 통제하거나 또는 분리불안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본다면 분리불안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어머니, 유아분리불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발달간의 밀접함을 고려할 때 유아의 정서발달과의 관련성 까지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김경미(2003).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지(2000). 어머니의 격리불안 및 결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그들의 종일반 탁아기관에서의 적응.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춘경(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 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4(1), 35-49.
- 권일선(1995).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혁준(2000). 또래 수용도와 부모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 박성옥(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아청(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2.
- 박주영(1999). 주말부모의 자녀양육실태, 격리불안과 죄책감.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희(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박주희, 이은혜(2001). 취학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소인주(2001). 어머니 분리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소인주, 도현심(2001).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11), 209-221.
- 손순희(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과 또래유능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진숙(1994). 탁아의 질과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경(2003).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순조(2002). 유아의 격리불안과 공격성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지각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 도현심(1998). 자녀 양육행동, 아동의 낮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6(8), 13-20.
- 양혜련(200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인기도와 사회적 문제해결 행동.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미(2002).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미(1997). 취업모의 격리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숙(1999). 취업모의 사회지지체계와 격리불안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복희, 박성옥(1990).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13, 16-37.
- 최영희(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 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옥(2004). 유아의 격리불안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양육태도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mbrose, B.(1961). The development of the smiling response in early infant, In B. M. Foss(Ed.),

-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 Baumrind, D.(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ecker, W. C.(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pp. 169-208). NY: Rusellsage.
- Benedek, T.(1970). Motherhood and nurturing. In E. J. Anthony & T. Benedk(Eds.), *Parenthood: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pp.153-166). Boston : Little, Brown.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Vol. 1). London: Gegarth Press.
- Crick, N. R.(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Doh, H. S., & Falbo, T.(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 Fordham, J. E.(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reported parenting styles, parent management techniques, demographic factors, and peer acceptance and rejection among fifth-and sixth-grad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Hartup, W. W.(1983). Peer realtions.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103-196). New York : Wiley.
- Hock, E. G., & McBride, S.(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4), 793-802.
- Howes, C.(1987).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Serial No. 217).
- Hurlock, E. B.(1978).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all.
- Levy, D.(1970). The concept of maternal overprotection. In E. J. Anthony & T. Benedeck(eds.), *Parenthood: Its psychology & psychopathology*(pp. 387-409). Boston: Little, Brown.
- Lutz, W., & Hock. E.(1995). Maternal separation anxiety: Relations to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of infant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1), 57-72.
- Miller, N., & Maruyama, G.(1976). Ordinal position and peer popula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33, 123-13.
- Nelsen, J., & Erwin, C.(2000). *Parents who love too much: How good can learn to love more wisely and develop children of character*. Roseville, CA: Prima.
- Parker, J. G.(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on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2), 138-147.
- Parker J. G., & Ahs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1), 107-120.
- Rubin, K. H.(1995). Parents' thoughts about children's socially adaptive and maladaptive behaviors: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47-6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Waters, E., Wippman, J., & Sroufe, L.A.(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3), 821-829.

접 수 일 : 2007년 7월 31일

심사시작일 : 2007년 8월 7일

게재확정일 : 2008년 6월 30일